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지 은퇴직불 사업' 홍보 활동

주남현 기자 | 승인 2025.09.29 17:28

송정역 인근 주민과 추석 귀성객 대상 적극 홍보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직원들이 송정역 인근 1913시장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가 영농은퇴 생활 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지사는 29일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주민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매매를 통한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고령 농업인들에게 1ha당 월 50만원(최대 10년, 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사 매입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5년 단위로 64세까지 관행 임대료 수준에서 장기로 임대하고 있다.

또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5~10년간 공사에 임대한 후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도 선택할 수 있다.

김철상 지사장은 "풍요의 명절에 맞춰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